

2019-1학기 iClass 수강 후기

학생 정보	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번	
	성명	신승훈	전화번호	
과목 정보	수강시기	2019. 03. 04 ~ 2019. 06. 21	수강과목	노사관계론
	담당교수	옥지호	주요내용	노·사 관계에 대한 이론
제목		iClass! 강의와 변화		

※iClass 첫 경험, 강의방식※

처음 오티를 듣고 수강신청에 대한 고민을 하였다. 평소 조별과제와 토론을 싫어하는 나였기에 한 학기 동안 들을 자신감이 많이 부족했다. 하지만, 그걸 스스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보완하고자 이 강의를 신청하게 되었다. 강의 진행 과정은 한 주에 첫 번째 강의 때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중요한 토론내용은 온라인 강의로 진행된다. 그리고 다음 강의 때는 그 온라인 강의에 대한 다른 사람들과 토론과 교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한다.

첫 번째 강의방식은 토론 강의를 하기 전에 우리는 빙 둘러 두 개의 원을 만들었다. 그리고 앞사람과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 원이 한 칸 움직여서 다음 사람과 자기소개를 하였다. 그렇게 반에 있는 모두와 자기소개를 통해 나를 소개하였고 상대방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토론에 약간의 말이 트이기 시작하는 작지만 큰 도움이 되었다.

두 번째 강의방식은 전체적인 노사관계에 대한 이론을 듣고 난 후 온라인 강의에서는 민주적 노사관계의 형태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음에 있을 토론내용을 알려 주었고 나는 미리 팀원들과 상의할 내용을 준비해가게 되었다. 토론에 대한 답은 팀원들과 상의해 정답이 없는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으며 더불어 온라인 강의에서 궁금했던 점을 팀원들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얻음으로써 서로의 의견을 공유해갔다. 그리고 우리가 토론한 내용을 가지고 교수님의 발표가 있었고, 다른 조들의 재치있고, 창의적인 의견을 통해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었다.

세 번째 강의방식은 가상의 기업을 만들어 기업 안에 5팀을 꾸린 후 토론을 통해 각자의 자원분배안을 가지고 최대한의 이익을 창출해내는 토론 팀배틀이 이루어졌다. 다른 팀에 대해서 설득과 협상을 통해 이익을 내야 이길 수 있기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총 3차례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놓을 수 없었고, 5팀 중에 1등을 하였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에 대한 설득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경청의 자세를 취했으며, 그 안에서 나의 주장을 통해 최대한의 이익을 끌어내는 협상의 기술을 배웠다.

네 번째 강의방식은 이론을 현재 발생 되고 있는 이슈에 적용하는 방식의 토론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파업에 대해서 교수님이 기사를 스크랩 해오시면 우리가 전날 미리 공부한 파업의 유형을 가지고 실제 이슈에 적용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이 강의를 통하여 우리의 현재 실생활에 적용해

몸으로써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를 살펴봄으로써 인해 새로움과 다양성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법과의 비교를 통해 쉽게 구분하고 좋은 점과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었다.

다섯 번째 강의방식은 직소토론이다. 이 토론의 특징은조를 두 번 편성한다는 것과 두 번의 토론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토론에서는 다섯 가지의 이론을 각 5개의 조에 편성을 한다. 그리고 자기가 맡은 한 가지의 이론을 팀원들과 토론을 진행한다. 그렇게 한 이론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있을 것이고, 두 번째조를 편성할 때 각각 5가지의 이론에 대한 5명의 전문가로 두 번째조를 편성한다. 그렇게 두 번째 토론을 진행하면서 각자 자기가 맡은 이론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해줌으로써 효율적, 효과적으로 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이론을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었고, 전에 미리 공부했던 다른 이론에서 궁금한 점을 질문해 해결해주는 부분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iClass 강의의 전체적인 평가※

한마디로, 사람을 유동적으로 바뀌게 만든 강의였다.

그저 교수님의 수업을 가만히 듣고 시키는 과제만 열심히 하는,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학생들을 ‘살아있는 시체’라고 불릴 정도로 오프라인 강의는 딱딱하고 형식적이었다.

iClass강의는 강의를 통해서 이론에 대한 지식 배경을 쌓은 다음 다른 사람들과 토론을 하기 위해서 사이버 강의를 통해 연습을 한다. 이로 인해 우리는 그 전날 궁금했거나 부족했던 부분을 미리 생각할 수 있었고, 토론을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과 동시에 복습을 하게 되는 효과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나는 항상 효과적인 토론을 위해서 주말에는 토론영상을 자주봤다. 일반대학생들과 각 분야의 토론전문가들과 토론을 하는 ‘끝장토론’이라는 방송과 매주 화요일에 방영하고 있는 ‘100분 토론’을 통해서 토론 강의를 진행될 때, 생각의 발상과 토론의 진행방식 주도권 등 토론 기술을 많이 참고하게 되었다. 그리고 사이버 강의를 듣고 난 후 나의 파트가 아니더라도 토론을 위해서 기본적인 배경이 되는 이론을 한 번 더 연습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었다. 이는 iClass강의뿐만 아니라 다른 수업에서도 효과적이었다. 내일 강의하는 부분을 항상 연습하였고, 조별과제나 토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팀에서 항상 신뢰하는 사람으로 거듭났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유동적으로 공부, 조사를 하게 되었다.

iClass강의를 듣기 전에 나는 고집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다. 어떠한 이론과 근거없이 주장만을 펼치는 사람이어서 주변의 속을 많이 썩이고는 했다. 그렇지만 이 강의를 듣고 난 후 나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주장을 펼칠 때 주장-이유-근거의 3박자가 맞아 떨어지야 상대방에 대한 설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아직도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고 변해가고 있다.

아직 iClass수업에 대해 교수의 수업방식이 각기 달라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추세이다. 다양한 강의방식과 인식개선을 위해서 강의에 대한 끊임 없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전주대 iClass수업은 지금부터가 시작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